

디자인·고성능 ‘감성’… 현대차, 미래 담은 ‘N 비전 74’

콩코스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 참가
국내 최초 콘셉트카 포니쿠페 영감
배터리 모터·수소연료전지 결합
주행거리 600km, 제로백 4초 이하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N 비전 74’가 세계적 클래식카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가 이탈리아의 대표 클래식카·콘셉트카 전시회에서 ‘현대 헤리티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는 19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사흘간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에서 열린 ‘콩코스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 2023’ 참가해 ‘N 비전 74’를 전시했다고 21일 밝혔다. N 비전 74는 고성능 N 브랜드의 수소 하이브리드 롤랩이다. 롤랩은 모터스포츠 노하우가 적용된 고성능 기술을 양산 모델에 반영하기에 앞서 연구개발 및 검증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빌라 데스테(레이크 코모 연안에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고급 호텔)’에서 열



‘콩코스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 2023’에 전시된 ‘N Vision 74’.

리는 우아함의 경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콩코스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는 1929년 처음 시작돼 매년 이탈리아에서 열린다. ▲클래식카 ▲콘셉트카 ▲이륜차 부문별 전시 및 경연이 진행된다.

지난 2018년 제네시스 브랜드가 참가해 ‘에센시아 콘셉트’를 전시했으며, 현대차는 이번이 첫 참가다.

N 비전 74는 현대차가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국내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했던 당시 현대차 임직원들의 열정과 기술, 디자인, 고성능 감성이 총망라된 차량이다.

이와 동시에 N 비전 74는 전동화를 넘어 그다음까지 바라보는 고성능 N 브랜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차량으로, 친환경 시대에도 ‘운전의 재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N 비전 74는 배터리 모터와 수소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특징적이다. 가혹한 모터스포츠 환경에서도 출력 저하가 없으며 5분 수준의 짧은 충전 시간을 자랑한다. 차량 전면에는 85kW급 수소연료전지 스택이 자리하며,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에는 62kWh 리튬이온 배터리, 후면에는 용량 2.1kg의 수소탱크 2개가 장착돼 있다.

후륜에 장착된 좌우 독립형 듀얼 모터는 680 마력의 출력을 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초 이하 수준이다. 주행 거리는 600km에 육박한다.

시각적으로는 쐐기 모양의 노즈(nose)와 종이접기를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 선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포니 쿠페 콘셉트 특유의 순수한 면(面), 역동적인 비례감, B필러 디자인도 계승했다.

루크 동커볼레 현대차그룹 CCO 사장은 “현대차는 고유의 유산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길을 열어 디자인 혁신

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 부사장은 “현대 디자인 DNA 근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디자인 헤리티지의 시작점이 됐던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명망 있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N 비전 74는 과거의 노력에 대한 헌사이자 미래를 향한 우리의 선언이며, 포니 쿠페 콘셉트의 대담한 정신을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계승해 한국 최초의 스포츠카를 만들고자 했던 엔지니어들의 꿈을 실현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N 비전 74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헤리티지를 공유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레이크 코모에서 고유의 헤리티지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기 위한 ‘현대 리유니온(Hyundai Reunion)’ 행사를 처음으로 열고 ‘포니 쿠페 콘셉트’를 원형 그대로 복원한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oul.co.kr

“입학해서 원하는 강의 듣고 학사모도 높이 던져요”

르포

KT ‘Y캠퍼스’

20대 전용 브랜드 팝업스토어
연남동서 이달 28일까지 운영
각 층별로 동아리 등 체험클래스

홍대입구역에서 연남동 골목으로 들어서 ‘연터파크’를 10분 넘게 걸다가 한 골목에 들어섰다. KT에서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동안 운영하는 민트색 건물의 팝업스토어 ‘Y캠퍼스’가 눈에 띄었다. 캠퍼스 앞에서는 잔디광장과 카페트럭에 자리잡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를 나눠주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 빛나는 Y / Your Own Spotlight’ 슬로건을 내건 Y브랜드 기반의 Y캠퍼스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카페콤마에 오픈한 20대 전용 브랜드 Y의 팝업스토어이다.

KT는 이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20대들이 진정으로 캠퍼스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뭘까’를 고민했고, 명사를 초청



서울 연남동 카페콤마에 KT가 오픈한 20대 전용 브랜드 Y의 팝업 스토어 ‘Y캠퍼스’.

해 대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 안에서 이용자들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강의들이 마련돼 있다. 또 각 층별로 강의실, 도서관을 만들었고, 체험클래스도 꾸몄다.

입구에 들어서면 입학처가 눈에 띈다. 입구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식권과 포춘쿠키도 제공한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큰 캠퍼스의 강의실에 눈에 들어온다. 이 곳은 미국 대학 느낌으로 꾸민 게 포인트이다, 명사들을 초청한 강연들이 바로 이 곳에서 진행된다. 19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20대 아티스트 지올팍이 ‘도전’을 주제로 Y들을 만났으며, 20일에는 KT를 소개한 코미디언 김용명의 강연이 준비됐다. 또 한쪽 벽면에는 빔 프로젝트를 쏘 티빙의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상영한다.

1층에는 여러 칸의 Y캠퍼스의 캐비닛이 마련돼 있는데, 아티스트들이 만든 굿즈들이 캐비닛 안에 전시돼 있다. 여기 전시된 제품의 상당수는 Y박스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캐비닛 위에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들이 보여졌다.

2층에는 과방이 마련돼 있었다. 방명록이 준비돼 있는데, 2층에 전시된 다양한 포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방명록에 기재하면 직원들이 스티커를 붙여준다. 2층에는 한쪽 공간을 레트로 감성으로 꾸몄고, Y2K 상품이 전시돼 있었

다. 창가 쪽으로 가면 휴대폰들과 패드가 놓여있었는데,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강연을 신청할 수 있었다. 3층에 올라가니 중앙도서관이 있었다. 교양강의를 이 곳에서 진행하며, 푸어링 아트 클래스, 가드닝 클래스, 캐릭터 그리기, 캐릭터 일러스트, 조향 클래스 등이 시간대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이 직접 학생증도 만들어볼 수 있다. 4층은 동아리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조향동아리는 LG생활건강과 함께 마련했는데, 다양한 향들을 맡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외부로 나가니, 옥상에서는 학사모 등 졸업복장들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의 입학생들은 1학년이어도 졸업이 가능하다. 학위수여식과 졸업 선물 증정이 이뤄진다.

김은상 KT 마케팅 담당 커스터머 사업본부 상무보는 “20대가 중요한 시장이고, 20대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20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



LG 베스트샵 강서본점에서 열린 세탁문화 세미나.

LG전자 세탁문화 세미나 개최 의류관리 노하우 공유

LG전자가 베스트샵에서 의류 관리 노하우를 공유한다.

LG전자는 18일 LG베스트샵 강서본점에서 세탁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장마철, 깨끗한 날씨 해법’을 주제로 6모션 건조기 체험과 ‘트루 스팀’ 및 ‘중요 후 세탁물케어’ 등 트롬 세탁기 차별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LG전자는 다음달 8일 LG베스트샵 불광본점에서 ‘친환경 비누 만들고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 알아보기’ 세미나를 비롯해 8월까지 다양한 세탁 문화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으며, 참여시 세탁세제와 리유저블백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전국 40여개 LG베스트샵에서 트롬 건조기를 직접 체험하는 ‘우리동네 셀프 건조방’도 마련한다. 젖은 빨래를 가지고 방문하면 트롬 건조기로 직접 건조해주는 자리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박원영 리빙솔루션마케팅담당은 “차별화된 6모션이 적용된 LG 트롬 건조기를 매장에서 마음껏 체험하고 세탁·건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여는 등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공영홈쇼핑, ‘ISMS’ 3회 연속 인증 획득

80개 항목 심사해 적합성 평가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쇼핑물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3회 연속 갱신·획득했다.

2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

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와 관련해 관리체계수립 및 운영 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으로 총 80개 항목을 심사해 적합성을 평가한다. 최초 심사에서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획득한 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中소연구원, ‘최저임금 쟁점’ 심포지엄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의신기자클럽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연다.

21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선 유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업종별 차등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업종·규모별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해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열리는 KOSI 심포지엄은 중기연구원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이 관련 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엔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김승호 기자